



주요소식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회 개최

SB선보(주)는 7월 17일 부산산학융합원 캠퍼스관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전사 사업실적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책임 이상 임직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7시간가량 진행됐다. 첫 일정으로는 사가 제창 및 최금식 SB선보(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법인 통합을 축하하는 임직원 축하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HSE 기획·기술영업 부문 보고와 다대·구평·김해·호남사업장별 보고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설계본부와 플랜트설계·플랜트품질·호남품질·총무/재무·구매·미래연구·전계장/시운전·사업운영·기획·전산 부문 보고가 이어졌다. 이후 최금식 회장, 박두선 부회장, 김청욱 사장, 김상도 사장의 강평과 사가 및 구호 제창을 끝으로 일정은 마무리됐다.

최금식 회장은 강평에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이를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선보 가족 여러분과 함께 부산에서 좋은 회사, 나아가 국내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보고 싶다"며 "회사의 성장과 성장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닌, 직원 개인의 성장과 존경받는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변하는 조선 산업과 글로벌 시장 속에서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혁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며 "큰 성장을 이룬 모듈 유니트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는 친환경 핵심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품질과 납기 준수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박두선 부회장은 "표면적인 문제보다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면 더욱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 능력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또 "무재칠시(無財七施)는 돈이 없어도 마음과 행동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웃는 얼굴로 남을 배려하며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회사도 더 좋은 회사, 존경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김청욱 사장은 "법인 통합 후 발생하는 업무 혼선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도 사장도 이에 공감하며 "현재 회사가 큰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의 성패는 속도와 격차에 달려 있다"며 "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차이를 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 소식

SB선보, '부산형 앵커기업' 선정



SB선보(주)가 7월 24일 지역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부산형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선보는 부산시가 이날 오전 시그니엘 부산에서 주최한 '부산형 앵커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 받고, 매뉴콘 기업 중심의 로컬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한 강연 및 네트워킹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각 앵커 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박두선 SB선보(주) 부회장이 선보 임직원을 대표해 참석했다.

부산시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는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우수기업을 중견, 준대기업 등 지역 대표급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앵커기업이 선도하는 지역산업 동반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프리앵커·앵커·탑티어앵커 등 단계별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선보는 이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앵커기업'으로 선정됐다. 앵커기업은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을 넘어, 후방 중소기업과의 거래, 지역 내 고용 창출, 기술 파급력,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지역산업 전반에 미

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선정기업은 3년간 3~5억 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기업 심층분석 및 전문 컨설팅 ▲기술개발 ▲특허·시험·인증 ▲해외 진출 ▲기업가치 제고 등 연구개발 및 비연구개발 분야 지원 등이다.

SB선보(주)는 부산 대표 제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나아가 지역 균형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선보 플리

출퇴근길, 어떤 노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흰수염고래 YB

이훈 책임 호남품질2팀

2년 전, 사회 초년생이 대다수인 대불공장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고르다가 알게 됐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란 혼자야 아니야' 오래전 제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기억도 나고요. SB선보(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To. 선보Family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고래처럼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시작 가호

김갑진 수석 설계8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단 생각에 지난해부터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SB선보(주)에게도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To. 선보Family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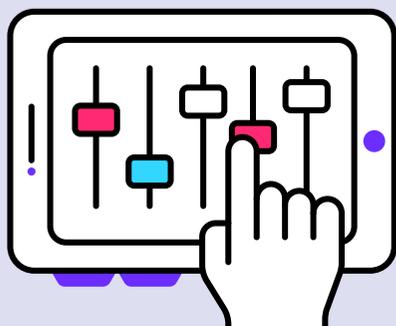
기달 곳 싸이

오창배 책임 설계6팀

가수 특유의 감성과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서 좋아합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괜찮은 듯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그럼에도 기달 곳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 듣곤 합니다.

To. 선보Family

우리 서로서로 기달 곳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공헌

선재장학재단, '미래주역 꿈 찾기 진로탐색 캠프' 개최

선재장학재단이 7월 23일부터 3일간 '미래주역 꿈 찾기 진로탐색 캠프'를 개최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선재장학재단과 김해시가 7월 23일 오전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래주역 꿈 찾기 진로탐색 캠프' 발대식에는 관내 33개 중학교 학생 120명과 대학생 멘토 8명, 보건 교사, 인솔자, 안전요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진로탐색 캠프 사업의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흥태용 김해시장·서재욱 선재장학재단 이사·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인사말,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서재욱 SB선보(주) 부사장은 올해 선재장학재단 이사로 취임하며 재단 경영 일선에 참여하게 됐다.

발대식 후 학생들은 곧장 서울로 이동해 대학로 연극 관람, 진로 활동 참여 등 첫날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탐방 및 롯데월드·국립과천과학관 견학 등 다양한 진로·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선재장학재단은 진로 활동 지원 외에도 김해 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 장학금 수여,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선보 챗봇

재기화(Regasification)와 재액화(Reliquefaction)

SB선보(주)에서 자주 듣는 두 용어, '재기화'와 '재액화'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재기화(Regasification)란?

액체 상태로 운반된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 가능한 기체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냉동실에 얼려둔 물(얼음)을 사용하려면 녹여야 하듯이, 공중 열린 LNG도 사용하려면 원래의 기체 상태로 풀어줘야 합니다. 이 '해동' 과정이 바로 재기화입니다.

어느 배에 탑재되나요?

주로 LNG를 운반하거나 사용하는 LNG 운반선(LNG Carrier) 또는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에 탑재됩니다. 특히 FSRU는 해상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기술은?

초저온(-162°C)의 LNG를 안전하고 빠르게 기체로 바꾸려면, 해수 또는 공기 등을 이용한 열교환기(Heat Exchanger)가 필요합니다. 이 열교환 기술이 재기화의 핵심입니다.

재액화(Reliquefaction)란?

기체로 증발한 천연가스(BOG, Boil-off Gas)를 다시 액체(LNG)로 전환해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이 녹았을 때 다시 냉동실에 넣어 얼리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천연가스 역시 장기간 보관 중 자연스럽게 일부가 기체로 증발하는데(BOG), 이 가스를 다시 액체로 바꿔 손실을 줄이는 과정이 바로 재액화입니다.

어느 배에 탑재되나요?

주로 LNG 운반선이나 LNG 연료 추진선 등 LNG를 오랫동안 저장하거나 장거리로 운송해야 하는 선박에 탑재됩니다. 특히 최신형 LNG 운반선들은 대부분 재액화 장치를 탑재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재액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다시 초저온으로 냉각해 액체로 만드는 냉동 압축 및 냉각 기술입니다. 압축기와 냉각기의 효율이 높을수록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항이 가능합니다.

회사 소식

관리감독자 지정서 수여식 개최

SB선보(주)가 7월 21일과 23일, 25일 부산사업장(다대공장·구평공장)과 김해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서는 박두선 부회장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끌어갈 관리감독자 총 55명에게 관리감독자 지정서와 안전 훈장을 전달했다. 박두선 부회장은 “SB선보(주) 각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직원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반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지하고,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가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안전보건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SB선보(주)는 관리감독 체제의 원활한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최선을 다하라”

선보Family

선보엔젤파트너스&라이트하우스 :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다

SB선보(주)는 7월 1일 통합법인 'SB선보(주)'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해양 신기술 분야 리더로서 주도적 혁신을 이끌 것을 천명했다.

이는 기존 조선업의 한계를 넘어 제2의 성장 동력을 찾고, 스타트업 발굴 및 신산업 개발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B선보(주)가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심축인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는 '개별 기술 개발을 넘어 탄소 포집부터 저장, 재활용, 친환경 연료 및 수소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한국형 통합 탈탄소 밸류체인'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설립된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는 단순한 투자사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찾아 실제 산업 현장에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가 함께 어우러져 실질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돕고 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주)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딥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한다. 특히 수소,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Net Zero 관련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 LIGHTHOUSE

라이트하우스는 **국내 최초의 중견기업 연합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고, 중견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잘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두 회사는 23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했고, 한국 경제의 핵심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의 30여 개 대표 기업이 직접 참여해 함께 산업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주)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는 Net Zero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SB선보(주)의 친환경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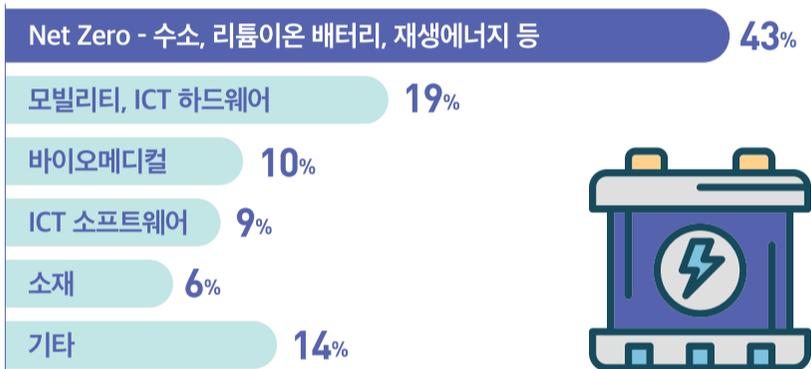
230 개
포트폴리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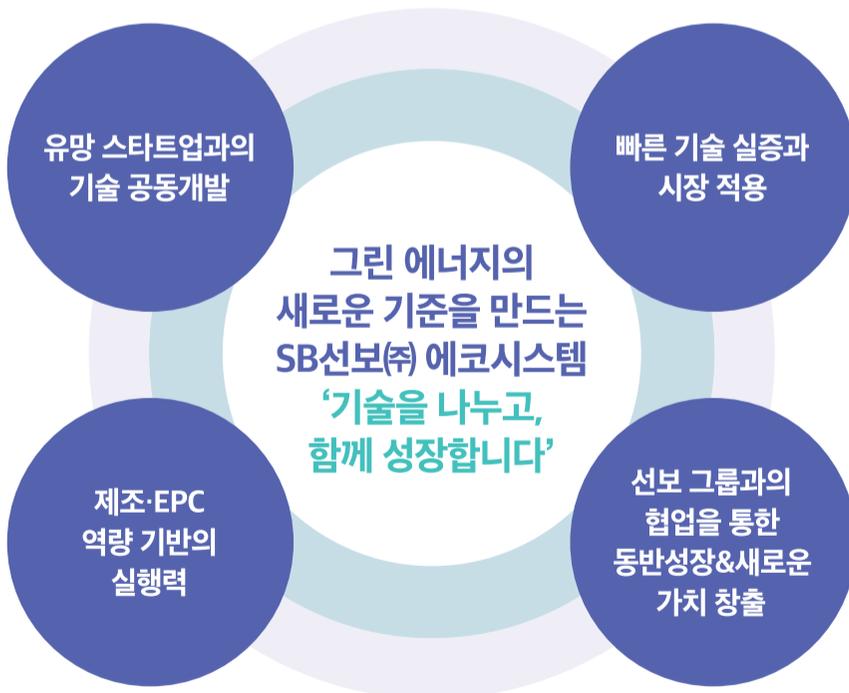
30 개
파트너·협력사



2,750 억 원
운용 자산(AUM)



SBSUNBO ECO-SYSTEM



기술, 산업, 시장을 잇는 선보의 푸른 항해
Sailing Green - Connecting Innovation to Real Impact



선보Family

SB선보의 든든한 동반자, 삼진공업을 소개합니다



<SUNBO NEWS>는 SB선보(주)의 뛰어난 제품 품질과 기술 혁신, 그리고 정확한 납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핵심 파트너들을 만나본다. 선보는 협력사들의 숨은 노고가 담긴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높이고, 조직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갈 것이다.

SB선보(주)와 2003년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삼진공업은 선보의 사내 협력사로, 다대1공장에서 중소형 PACKAGE UNIT(MODULE UNIT)의 의장 부품을 담당하고 있다.

Q. 귀사가 SB선보(주)와의 파트너십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SB선보(주) 다대1공장에서 중소형 PACKAGE UNIT의 의장 부품을 담당하며, 엔진 룸의 필수 요소인 퓨리파이어 룸과 보일러 룸의 각종 의장품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랜 협력 기간 동안 안정적인 납기와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현재 SB선보(주)와 협력 생산 중인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A/S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라인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오작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장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절단 및 가공 장비 등 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업 시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SB선보(주)와의 협업 중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삼진공업 직원들은 무엇보다 SB선보(주)의 가족 같은 분위기와 따뜻한 배려를 매우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축하금뿐 아니라 직원들과 가족의 생일을 챙겨

주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장님을 비롯한 SB선보(주)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Q. SB선보(주)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향후 동반성장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조선업은 전반적으로 호황이지만, 1공장에서는 유니트의 장비화로 인해 삼진공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길 바라며, 외주 협력사 직원과 직영기업 구성원들이 더 많이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Q. SB선보(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SB선보(주)가 4개 법인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삼진공업도 그 일원으로 함께하며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SB선보(주)가 목표하는 상장이 꼭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삼진공업도 더욱 활발히 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수환 삼진공업 소장



회사 소식

ERP 마이그레이션, 추진팀 발대식 열고 본격 가동

7월 17일 개최된 사업실적 보고회에서 ERP 마이그레이션 추진팀의 공식 발대식이 함께 개최되며 본격적인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을 넘어 전사 차원의 협업 체계를 선언하는 자리로, 각 본부 및 부서별로 선발된 추진 담당자들이 참석해 프로젝트의 향후 일정과 역할을 공유했다. 발대식에서는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부서별 역할, 주요 일정 등을 안내하고, ERP 전환이 단지 시스템의 변경이 아닌 업무 방식의 혁신임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환경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8월 중 개최될 부서별 실무 미팅 순차 진행발대식을 기점으로 해당 월부터는 부서별 추진 담당자들과의 실무 미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미팅은 현업의 업무 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ERP 반영 사항을 논의하고, 부서별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실질적인 협업 단계다. 수렴된 의견은 시스템 설계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며, 향후 개발 과정의 핵심 참고 자료가 된다.

부서별 미팅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으로,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 현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ERP 설계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현장에서 시작하는 변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로서 의미가 큰 ERP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이제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발대식을 통해 중심축이 구성된 만큼, 앞으로의 성패는 현업과의 유기적 협업에 달려 있다. 성공적인 시스템 전환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업무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도 위로를 건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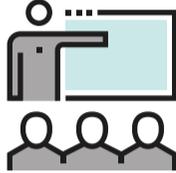
사내 복지 '한층 성장한 나를 마주하다' 신입사원 멘토링 참여 후기

지난 4월 입사한 신규입사자 3명은 각자 선배 멘토(유관부서 1인, 타 부서 1인)를 지정받고 3개월간 멘토링에 참여했다. 입사 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이들이 업무와 사내 관계를 비롯한 회사생활 전반에 얼마나 적응했고,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멘토링 참가자 적응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멘토링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 매우 도움이 되었다(3명, 100%)



멘토링 활동에서 가장 도움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회사 및 부서 이해(3명, 100%)
- 업무 적응 및 실무 학습(2명, 66.7%)
- 사내 인간관계 형성(3명, 100%)
- 유관부서와의 연결 및 협업 이해(1명, 33.3%)
- 정서적 지원(심리적 안정감·고민상담 등)(1명, 33.3%)

멘토링 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멘토링 지원금 활용 범위 확대(1명, 33.3%)
- 개선 필요성을 못 느낌(2명, 66.7%)



멘토링 중간 리뷰



멘토

이명호 선임 재무인사팀

정영훈 선임 미래연구팀

멘티
박다연 사원
미래연구팀

3개월이 지난 현재 직장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 업무는 아직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사 초기와 비교해 문서 작성 능력이 향상됐으며, 출근 교통편 등 개인적인 사정 외에는 사내 생활에서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이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특별히 느끼지 못했고, 부서별로 참가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토

김시윤 선임 전계장개발팀

양승현 선임 구매팀

멘티
황원우 사원
전계장개발팀

처음 입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회사에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사 초기에는 업무를 진행하며 모르는 부분이 매우 많았는데, 현재는 팀장님과 팀원분들께 많이 배워서 익숙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향후 신입사원들이 입사 초기에 숙지하기 쉽도록 정형화된 교육 커리큘럼이 제작된다면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멘토

윤동현 선임 영업2팀

이용석 선임 프로세스개발팀

멘티
박형준 사원
프로세스개발팀

입사 후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팀원들께 편하게 물어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몫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과 같은 멘토링 제도도 충분히 좋지만, 소속 부서의 인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멘토와의 나들이



4월 4일 | 박다연 사원 with 멘토

회사 근처 '백두봉삼계탕'에서 만나 식사하며 회사생활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커피 한 잔씩 들고 뱃길을 걸으며 서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며 점점 편안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를 마련해 신입사원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입니다.



4월 9일 | 황원우 사원 with 멘토

멘티의 적극적인 메뉴 추천으로 양꼬치 식당에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입사한 황원우 사원, 그리고 입사 시기가 비슷한 같은 팀 강신우 선임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두 달간 회사생활을 하며 생긴 궁금증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으며, 회사 밖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6일 | 박형준 사원 with 멘토

입사 한 달 차, 출근과 동시에 프로젝트부터 시작한 멘티들과 함께 하단에서 저녁을 먹으며 회사생활에 도움이 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Special

세계 1위, K-조선의 50년 도전 역사와 미래

한국 조선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 후진국에서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과 해외 기술 도입으로 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내 조선업은 석유 파동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숱한 위기를 겪으며 부침을 거듭해 오다, 현재는 정부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고 있다.

1974년, 현대 울산조선소 준공을 시작으로 대형 조선소들이 잇따라 설립됐다. 정부 지원과 해외 기술 도입,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초기 기술 및 자금 부족을 극복하고 산업 기틀을 마련하며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그러나 1차 석유 파동(1974년)과 2차 석유 파동(1978~1980년) 여파로 세계 조선시장이 침체되며 수주 경쟁이 격화됐고, 국내 조선소는 '저가 수주와 기술 확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양적 성장보다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며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국내 조선업계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과감한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집중했고, 1993년 마침내 일본을 제

치고 세계 1위 선박 수주국으로 우뚝 섰다.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하며 한국 조선의 위상이 높아졌고, CAD 설계 도입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대폭 향상됐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었고, 조선업 역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은 수출 중심 산업으로서 외환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해운 수요 증가와 고유가 환경이 한국 조선사에 기회로 작용했다. 국내 조선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품질 강화, 세계 수주 경쟁에서의 우위, 효율적인 산업 구조와 전문 인력 양성 및 조선소 효율화를 통해 대량생산 체제를 안정적으로 갖춰 나가는 등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중에서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로 기술력을 확대해 나간 결과, 장기적으로 세계 조선 수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조선업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가 급감하며 과도한 확장 투자의 부작용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수주 호황이 지속됐지만, 유가 하락과 해양플랜트 수요 감소, 중국 조선업의 부상 등으로 인해 국내

조선산업은 2016년 수주 절벽 등 또 다른 위기를 맞으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조선 빅3는 해양플랜트 부실과 인건비 부담 속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형 조선소는 연쇄 도산을 겪었다. 기술 고도화와 선택과 집중 전략이 일부 효과를 거두며,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거치며 생존을 모색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황 속에서, 정부는 2018년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2019년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산업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LNG 연료 추진선,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및 수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 단기 애로 해소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됐고, 민관이 힘을 모은 결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경쟁력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K-조선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국가 전략 사업이다. 우리 조선업은 지난 50여 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성장시킨 저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암모니아 및 수소 기반 선박, 디지털 트윈 기술, 자율운항 선박 등 다양한 신기술 중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친환경·스마트 조선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Special

'세계 속 SB선보' 글로벌 제품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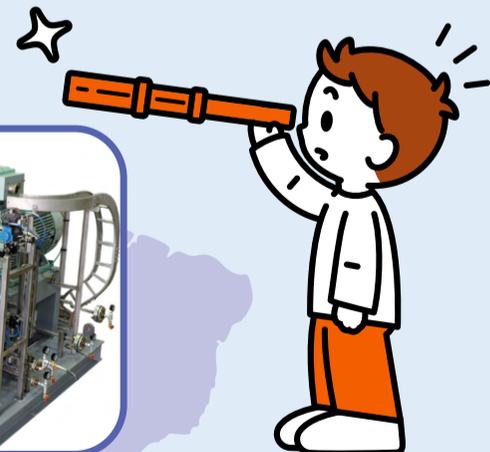
"바다에서 세계로, 에너지로 내일로-"

SB선보(주)는 친환경 선박 제품과 에너지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해양 신기술 분야의 독자적 기술과 국제 해양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핵심 솔루션을 강점으로 세계 시장을 활발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SB선보(주)의 글로벌 제품 지도는 선보의 기술이 도달한 전 세계 주요 시장과 제품 적용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창입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SB선보(주)의 글로벌 여정을 확인해 보세요.



미국 HP pump skid



1970~2020 K-조선 50년 주요 연혁

1980's

글로벌 진출과 대형 선박 기술 도약기

- 조선 수출 본격화 및 대형 선박 기술 발전
- 국내 최초 VLCC 건조(1981년)
- 2차 오일쇼크 여파로 불황 및 구조조정

2000's

압도적 경쟁력으로 '글로벌 리더십' 확보기

- 조선업 슈퍼 사이클 진입 (2000~2007년)
- 세계 조선 물량의 절반 이상 수주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로 인한 수주 급감 및 공급 과잉

2020's

스마트·친환경 기술 전환과 재도약기

- 코로나19 여파 속 2021년 세계 수주량 1위 탈환
- 친환경 LNG 선박 수주 급증
- 스마트·친환경 등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로 세계 시장 주도
- 슈퍼사이클 재도래 기대,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기술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 전환

1970's

조선업의 태동과 기반 구축기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착공 및 준공 (1972~1974년)
- 대우조선공업(1975년)·삼성중공업 (1976년) 설립

1990's

'세계1위 도약'의 초석 다진 성장기

- 선박 기술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선종 해외 진출
- 세계 1위 선박 수주국 등극(1993년)
-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1997년) 및 생산성 강화 노력

2010's

위기 극복과 고부가가치 선박 전환기

- 중국 조선업 부상 및 저가 수주 경쟁 심화
- 해운업 불황, 유가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 위기 및 구조조정
-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 전환 및 회복 조짐

프랑스 Ecochill(sub-cooling system)



중국 FGSS, LNG filter skid



스위스 HP compressor skid, side module

일본 FGSS, wind propulsion



싱가포르 Regasification



교육

‘리더의 전략적 스피치 : 보고의 기술’ 아침특강 개최

SB선보(주)가 7월 9일과 23일 다대1공장과 구평공장 교육장에서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아침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리더의 전략적 스피치 : 보고의 기술’을 주제로 임직원들의 스피치와 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아 (주제이컴즈 강사가 진행한 특강에서는 ▲브리핑의 개념 ▲성공적 브리핑을 위한 체크 포인트 및 구성 요건 ▲브리핑의 필수 요소 ▲PREP 기법을 활용한 스피드 보고법 ▲다양한 사례 예시를 통한 브리핑 전략 이해 ▲브리핑의 질을 높이는 화법 및 비언어적 표현 등이 소개됐다. 선보Family는 특강을 통해 자신 있게 의견과 정보를 전달하는 법과 효과적인 보고 및 브리핑의 핵심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브리핑이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닌, 정해진 시간 내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 및 요약해 자신이의 도한 대로 판단과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

브리핑의 필수 요소

- 언어적 요소(The Speech)
- 비언어적 요소(Voice&Body Language)
- 시청각 도구(Equipment)
- 중간 확인(Preparation)
- 적절한 타이밍(Environment)

브리핑의 구성

- 결론(So What?)**
 -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 보고자의 주장은?
 - 중요한 포인트는?
- 이유(Why so?)**
 - 왜 그렇게 된 것인지?
 - 이유가 무엇인지?
 -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 건지?



방법(So How?)

-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
-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 보고받는 이의 할 일은 무엇인지?
- 이행 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PREP 기법을 활용한 스피드 보고법

- 01 Point(포인트) : 먼저 결론(포인트)을 말한다.
- 02 Reason(이유) : 그 이유를 설명한다.
- 03 Example(사례) : 구체적인 예를 든다.
- 04 Point(포인트) : 결론(포인트)을 한 번 더 말한다.



사회공헌

선보봉사단, 물운대복지관서 배식 봉사활동 진행

7월 8일 오전 선보봉사단이 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최경호 상무(사업 품질 기획 담당)를 비롯해 1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배식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 봉사단원들은 식사 준비부터 대접뿐 아니라 경로식당의 위생 점검과 정리 정돈에도 신경 쓰며 세심하게 일손을 보탰다. 물운대복지관 측은 “무더운 날씨에도 정다운 미소와 친절한 응대로 어르신들께 큰 기쁨을

안겨드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SB선보(주)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SB선보(주)는 공익을 실천하는 지역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하며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늘의 최선을 담자”

방문 부산기계공고 재학생, 다대·구평공장 방문

7월 16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다대2공장과 구평공장을 방문해 기업탐방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구평공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먼저 현장 견학 후 다대2공장으로 이동해 D동과 컨트롤 룸 등을 둘러봤다. 이후 본사로 이동해 홍보관과 설계사무실을 방문하고, 교육장에서 기업 소개 경청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최경호 상무(사업 품질 기획 담당)가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질의에 답했다. 선보는 지역 청소년과 인재들이 적성과 현장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취업 관련 기관들이 시행하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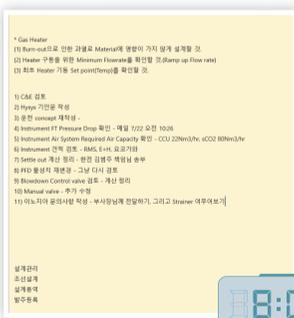
선보로그 신사업 프로젝트 성공을 향해! - 오예린 선임

프로세스개발2팀은 신사업 분야의 프로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전해, sCO₂ 발전 설비, 바이오가스, CCU/CCL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예린 선임은 그 중 sCO₂ 발전 설비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작동 유체로 사용해 Turbine을 구동하고, 이를 통해 2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오예린 선임이 입사 후 처음 직접 맡은 프로젝트이기에, 더욱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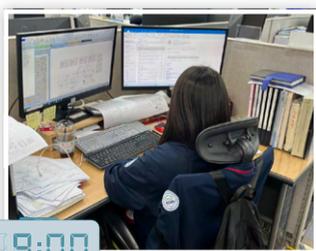
오전일과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어요. 나름 일찍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먼저 거리에 나선 수많은 사람을 보며 멋지다고 느낍니다. 오늘도 파이팅! 직장인 파이팅!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도착한 메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모장에 정리해둔 할 일 목록을 확인해요. 물론 목표관리수첩에도 적어두긴 하지만, 컴퓨터 메모장에 적어두는 게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 주로 활용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꽤 많아서 얼른 업무를 시작해야겠네요. ㅎㅎ



Vendor 도면에 따라 Manual valve의 추가 또는 Size 변경 사항을 List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P&ID 상에 Line 하나만 추가해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반영해야 할 사항이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업무에 임하고 있어요.



프로세스개발1팀 김건웅 책임님이 입사 기념으로 받은 치즈케이크와 주스를 나눠주셨어요. ㅎㅎ 배고팠는데 덕분에 간식 먹으면서 업무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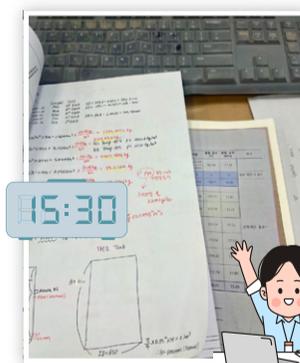


업무를 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감자샐러드가 나왔어요.

오후일과



Instrument 업체인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와 미팅을 했어요. Special Item인 2500# Coriolis type의 Flow Transmitter에 대한 견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다. 오신 김에 Datasheet의 Accuracy, Pressure Drop 등 궁금한 점들도 여쭙봤습니다. 확실히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전문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Settle Out Pressure를 계산 중이에요. 시스템을 운전하다가 정지했을 때의 평형 압력을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아직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게 확실히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Client에게 Calculation을 송부해야 해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하고 Sheet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개인 노트를 따로 만들어 계산식이나 개념들을 정리하며 계속 익혀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휴가 전날 퇴근이라 그런지 더욱 기분이 좋아요! 다들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본가가 경주라서, 이번에 경주로 내려가 가족들과 계곡도 가고 오랜만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예정이에요. 우리 집 막내 토리도 얼른 보고 싶네요. ㅎㅎ 다들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EVENT 결과

‘이모지로 떠나는 영화 여행’ 이벤트 결과

<SUNBO NEWS> 7월호 ‘이모지로 떠나는 영화 여행’ 이벤트에 52명의 선보Family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1등** 치킨 교환권 : 진호련 선임(설계8팀)
- 2등** 햄버거 세트 교환권 : 김정기 기원(전계장시운전팀), 박정현 선임(구매1팀)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 강영한 책임(설계4팀), 양혜진 선임(미래연구2팀), 이명호 선임(재무인사팀), 장동휴 선임(품질1팀), 최순우 사원(설계4팀)



EVENT

‘여름아 부탁해, 추억 한 컷!’ 휴가 사진 공모전

<SUNBO NEWS>는 돌아온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선보Family의 즐거운 여름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여름아 부탁해, 추억 한 컷!’ 휴가 사진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반려동물과 함께 다녀온 나들이 사진을 여행 일자, 장소, 소감과 함께 총무팀에 보내주세요. 제출 시 투표를 통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며, 다음 호에 콘텐츠로 게재됩니다.

참가 대상 선보Family 및 사내 협력사 임직원 전원

제출 일 8월 29일(금)까지

투표 일 9월 2일(화)~9월 4일(목)

상금
1등 100,000원(1명)
2등 50,000원(2명)
3등 30,000원(3명)

▶ 장기근속자 포상 공고

	성명 및 직책	소속	입사일
다대1공장	신명환 선임	사업기획팀	2015.08.24(10주년)
협력사	박영호 팀장	재경공업(다대1공장)	2000.08.07(25주년)

- 총괄 편집 이세영 수석, 이수지 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 총무, 행사, HSE 김수환 선임, 배상준 선임
- 제작 미디어줌 (Tel. 051. 623. 1906)

“내가 노력하는 만큼, 누군가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 다대1공장** 이용석(08.02) 장봉수(08.18) 박건우(08.28)
김종만(08.04) 최두영(08.20) 양승현(08.28)
김혜선(08.04) 강민지(08.25) 김상운(08.30)
김광수(08.15) 쓰영 안(08.26)
손범석(08.18) 권에라(08.27)
- 다대2공장** 이정수(08.05) 김경태(08.10) 김영호(08.16)
김정기(08.06) 정지훈(08.13) 김천기(08.29)
- 구평공장** 디 키(08.06) 반투아(08.13) 김태윤(08.19)
정정배(08.06) 잠 잠(08.15) 이연호(08.23)
강화진(08.08) 이동준(08.17) 하보선(08.26)
박진천(08.08) 조상연(08.17) 이수목(08.28)
- 대불공장** 펠ैया하(08.03) 김태형(08.12) 방명복(08.16)
프라카서(08.10) 천무경(08.12) 김건우(08.24)
김영태(08.12) 신창현(08.14)
- 영암공장** 손명기(08.06) 부(08.15) 안종철(08.29)
키 란(08.06) 아시리(08.19)
황창하(08.06) 프라산나(08.24)
- 김해공장** 안락균(08.07) 이기훈(08.18) 박상민(08.22)
남철기(08.18) 이의수(08.18) 김형규(08.26)

입사기념일

- 다대1공장** 최금식(08.01) 김정민(08.07) 최경호(08.13)
원윤정(08.03) 박영호(08.07) 이은식(08.16)
정대환(08.03) 이노경(08.07) 성광준(08.21)
이동원(08.04) 이우석(08.08) 쓰영 안(08.23)
강동호(08.07) 이철현(08.09) 신명환(08.24)
- 다대2공장** 김은식(08.06) 김천기(08.11) 홍 타이(08.23)
양정수(08.07) 성민철(08.12) 안 민(08.24)
- 구평공장** 김승현(08.01) 두 안(08.07) 김천석(08.27)
반 킷(08.05) 산(08.07) 피 안(08.27)
강성훈(08.07) 표종원(08.24) 왕창해(08.28)
- 대불공장** 고현민(08.01) 오수태(08.07) 미우미우네(08.14)
김윤식(08.01) 이재빈(08.07) 신창현(08.14)
김정환(08.01) 이명섭(08.12) 트 란(08.17)
김진혁(08.01) 방명복(08.13) 김원기(08.19)
박시환(08.01) 천대철(08.13) 령(08.28)
이홍희(08.01) 후이관(08.13)
임국선(08.01) 누에(괴렛)(08.14)
- 영암공장** 설상철(08.01) 아시리(08.05) 이대현(08.06)
김대영(08.04) 양관철(08.05)
강태형(08.05) 강보철(08.06)
- 김해공장** 노재태(08.02) 투 안(08.03) 반 득(08.05)
김영민(08.03) 김정일(08.04) 양태진(08.09)
반 엽(08.03) 이은하(08.04)
제도성(08.03) 조경래(08.04)